

지금의 내가 존재하기 까지 (나의 역사)

나의 꿈은?

프론트엔드 개발자

이 꿈을 갖게 된 이유는?

어릴 적부터 포토샵과 코딩에 관심이 많았음

중학시절 포토샵을 독학하면서 디자인이 하고싶었고,

고등학교도 디자인고 시각디자인으로 오게 되었음.

어릴 때는 코딩에 관심이 있던 터라, 두 점이 결합된 점이 맘에들었다.

꿈을 이루기 위한 향후 준비과정은? ( 향후 15년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)

잘 모르겠다.

기능대회 수상하고, 학교졸업 후 인턴이던 뭇들간에 취직해서 디자인을 더 배우고싶음

사실 장래희망이 웹디자이너이고 이 쪽으로 직업을 얻고 싶지만

더 괜찮은 직업이 있으면 금새라도 때려치우고 갈아탈 준비 되어있음

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직업도 괜찮은 것 같고...

아직 학생이니 이것저것 더 경험해보고 싶음

그래도 주어진 기회를 그냥 보내버릴 순 없으니

매일같이 기능반에 남아서 열심히 공부중.

혹시나 수상하지 못하여도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고,

가볍게 ITQ자격증 같은 사무자격증 따 두면, 밥 정도는 먹고 살만하지 않을까 싶음

지금수준에서도 HTML CSS 같은 마크업언어는 가르칠 만큼 다룰 수 있음.

그래도 할 수 있으면 더 잘 배워서 돈 더 많이 받고 살면 좋으니까..

초등교육에서 이렇게 가볍고 쉬운 언어를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

가끔 하고는 했음.

그래서 결론적으로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, 이것저것 알아보고, 돌아다녀보고,

배워보고. 그런 자세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음.

요구되는 직업윤리는?

창조는 모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데. 그 것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영감을 얻기위해

참고하는 정도라고 생각하고. 남의 디자인을 도용하는 그런 짓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.

이 꿈을 통해 내가 지향하는 인간상 혹은 지향하는 삶은?

사실 지금은 양계장 닭 마냥 학교에 틀어박혀,

오전 6시 30분 기상 , 오후 9시 30분 퇴근, 오후 10시 헬스장,

이런 지겨운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. 나중에도 이런 끔찍한 일상에 틀어박히게 될 것이다. 고 생각하니 정말... 생각만해도 답답하다.

앞으로는 앞전에 말했듯이 조금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

그런 일을 해도 좋을 것같다. 물론 디자인으로 여러 홈페이지를 내가 직접 디자인 해 파는일도, 맘에든다.